

# 로마 공화정기 군단의 전술대형의 변화

裴 銀 淑

(계명대 교수)

1. 머리 말
2. 군단의 편성과 전술
3. 마리우스 군제 개혁의 효과
4. 맺음 말

## 1. 머리 말

로마가 작은 도시에서 출발하여 세 개 대륙을 장악·쇠퇴한 이유는 군대에 대한 해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제국을 형성한 것도 군대요, 제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군대이기 때문이다. 로마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가 건국할 당시 북쪽의 에트루리아(Etruria)는 강력한 적이었다. 에트루리아의 쇠퇴와 로마 팽창의 계기가 된 것은 에트루리아의 도시인 베이이(Veii)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에트루리아, 볼스키(Volscii), 아이퀴(Aequi)의 쇠퇴 후 팽창 일로에 있던 기원전 4세기 초 로마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의 패배를 경험했다. 30,000명의 갈리아

(Gallia)인이 비옥한 땅과 약탈품을 기대하며 포(Po) 강을 건너 이탈리아로 남하했다. 이들은 로마에서 약 18km 떨어져 있는 알리아(Allia) 강 유역을 점령하고 로마시로 들어왔다. 갈리아인 못지않게 기동력을 갖춘 적은 아페니누스 산맥에 거주하던 삼니움(Samnum)인이었다. 로마는 이들과 총 3차에 걸친 전쟁을 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된 계기는 피루스(Pyrrhus)와 벌인 전쟁이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 개의 대륙을 장악하게 된 계기는 포에니 전쟁, 마케도니아 전쟁, 시리아 전쟁이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을 계기로 대부분의 히스파니아(Hispania) 지역을 점령하게 된 로마는 원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렸다. 이들은 산악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며 로마에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북동부의 누만티아(Numantia)인은 매복과 급습에 능숙했다. 누만티아 전쟁, 누만티아 공격에서 로마 편에 동참했던 유구르타(Jugurtha)와의 전쟁, 곧이어 김브리인(Cimbri)과 테우토네스인(Teutones)을 주축으로 한 게르만족과의 전쟁 등을 통해 로마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적과 대적했다. 유구르타와 게르만족 격퇴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마리우스(Gaius Marius) 집권 이후 로마는 70여년에 걸친 내란에 돌입했고, 내란의 종결과 함께 로마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Res Publica*; 기원전 509-기원전 30년)에서 원수정(*Principatus*; 기원전 27-기원후 284년)으로 바뀌었다.

제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로마 군단은 한 가지 편제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중장보병 밀집대형(*phalanx*)에서 중대(*manipulus*) 편제로, 중대에서 대대(*cohors*) 편제로 바뀌었다. 현재 로마 군대의 편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척된 상황이고, 특히 중대와 대대의 구성은 오래된 논제이다.<sup>1)</sup> 다만

1) H. M. D. Parker, *The Roman Legions* (Oxford: Ares Publishers, 1928), pp. 21-46; E. Rawson, "The Literary Sources for the Pre-Marian Army," *Papers of the British School at Rome* 39(1971), pp. 13-31; G. Webster,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3rd ed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pp. 19-24;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중장보병 밀집대형, 중대, 대대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러한 편제가 실제 전장에서 어떠한 장단점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로마 군단의 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와 그 개편된 편제가 전투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중장보병 밀집대형, 중대, 대대로 바뀐 이유와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편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군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때문에 기존 편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편제의 실효성까지 검토해야 로마 군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이것은 로마군 승리의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편제는 전투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향상된 전투력은 승리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2. 군단의 편성과 전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전술은 농민인 병사들이 자신의 땅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적에게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가 좀 더 조직적인 형태로서 병사들이 서로 조밀하게 서서 하나의 대형을 갖추는 밀집대형 전술이었다. 기원전 900-612년 중동 지역을 지배한 아시리아(Assyria)는 철제 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아시리아는 전차와 대규모 기병을 보유했지만 주요 병력은 보병이었고, 농민들이

---

*from Republic to Empir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pp. 51-67; A. Goldsworthy, *Roman Warfare* (London: Cassell, 2000), pp. 92-101; idem, *The Complete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2003), pp. 46-49.

여름 몇 달 동안 전쟁에 동원되었다. 이들의 밀집대형 전술은 이집트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전파되었고, 기원전 700년경 그리스 지역에서 중장보병 밀집대형이 발전했다. 이것은 이전에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갑옷과 투구, 정강이받이, 찌르기용 장창, 방패, 검 등을 일반 보병들이 착용하고 조밀한 형태로 싸우는 전술이었다.<sup>2)</sup>

기원전 7세기 후반 그리스의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이 에트루리아에 도입되었다. 이에 에트루리아도 갑옷, 깃이 달린 투구, 장창, 둥근 방패, 정강이받이로 무장한 중장보병을 주력 부대로 삼았다. 보병들이 그 정도의 전투 장비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중장보병 밀집대형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야 활성화될 수 있었다. 장창만 가지고 싸우는 경보병은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예비군으로 대기했다. 기병은 전초전에서, 혹은 적을 추격할 때 활용되었다. 많은 에트루리아인의 무덤에서 전차가 발견되지만, 단순히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용했는지, 아니면 병사가 타고 전장에서 활약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로마는 기원전 6세기 에트루리아에게서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을 알게 되었다. 인구 증가와 토지 소유자 계층의 증가로 중무장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장보병들로 밀집대형을 구성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밀집대형 전술로 전투할 때 중장보병들은 방패를 서로 겹친 채 창으로 찌르면서 나아갔다. 병사는 왼손에 들고 있는 방패로 자신의 왼쪽을 보호했고, 자신의 오른쪽은 옆 사람의 방패로 보호했다. 뒤에 있는 병사는 앞에 있는 병사의 어깨 위에 창을 비스듬히 세워 날아오는 창이나 돌을 막아 전체 대형을 보호했다. 전열이 사망했을 때 후열이 그 자리를 메우면서 전진했다.<sup>3)</sup>

2) S. Anglim, P.G. Jestice, R.S. Rice, S.M. Rusch, J. Serrati(eds.), *Fighting Techniques of the Ancient World 3000 BC~500 AD: Equipment, Combat Skills, and Tactics* (New York: Thomas Dunne Books, 2002), pp. 7-21.

3) Polybius, *Historiae* 18.30.1-4; Livius, *Ab Urbe Condita* 1.43.1-9; Gellius, *Noctes Atticae* 6.13.

당시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은 그리스 지역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지만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선진 전술에 속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로마는 중대 중심의 군대로 개편했다. 중대(*manipulus*)라는 말은 ‘손(*manus*)’과 ‘가득 차다(*plere*)’는 동사의 합성어로서 한 움큼, 즉 소수의 병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의미이다.<sup>4)</sup> 중대로 개편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에트루리아의 영토를 상당히 편입했고, 갈리아인이 로마시로 진군해와 대패한 상황이었다. 같은 밀집대형 전술을 구사하는 에트루리아와 달리 갈리아인은 숲과 늪지가 많은 지형에서 살았기 때문에 넓은 지형을 요구하는 밀집대형을 구사하지 않았다. 이들은 검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으로 전초전에서, 특히 매복 작전을 통해 승부를 결정짓고 전투를 종결지었기 때문에 대형을 갖추고 전진해서 싸우는 로마군은 불리했다. 이들의 개방형 전투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로마의 중장보병 밀집대형은 둔했다.

중대 개편의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을 치르면서 밀집대형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약점은 첫째, 일부 대열의 패배가 전체 대형의 붕괴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밀집대형은 적계는 4열에서 8열, 12열, 16열 등 여러 개의 세로 열을 배치한 것이었다. 기원전 190년 마그네시아(Magnesia) 전투 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Antiochos)는 32열로 대형을 펼쳤다.<sup>5)</sup> 대열의 수는 아군과 적의 병력의 수에 따라 다양했다. 각 대열은 조밀하게 서서 싸우므로 적에게 돌진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의 공격으로 조밀한 대형이 무너지면 앞쪽의 전투력은 급속히 감소되었고, 시야가 넓지 않는 뒤쪽은 전투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전열의 파괴가 대형의 붕괴와 전체 군대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었다.

둘째, 밀집대형은 지형에 좌우된다는 약점이 있었다. 밀집대형은 서로 조밀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확 트인 넓은 지형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

4) Varro, *De Lingua Latina* 5.88.

5) A. Goldsworthy, *Roman Warfare*, p. 52, 70.

다. 그러나 자연적인 방해물로 인해 대형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지형일 경우 밀집대형은 무질서해지고 전투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았다. 예를 들어, 기원전 168년 피드나(Pydna) 전투에서 마케도니아군이 좁은 지형에서 밀집대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점이 로마군 승리의 한 원인이었다. 로마의 지휘관인 아이밀리우스(Lucius Aemilius Paulus) 휘하에는 4,000명의 기병을 포함하여 38,000명의 병력과 전투 코끼리 22마리가 있었다. 마케도니아의 페르세우스(Perseus)의 병력은 기병 4,000명을 포함하여 총 60,000명으로서 로마군보다 많았다. 전투가 시작되어 마케도니아의 밀집대형이 전진해 올 때 로마군은 일순간 겁을 먹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밀집대형이 전진할수록 땅은 고르지 않고 대열은 너무 길어 작은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너무 조밀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장창(sariss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 점을 포착한 아이밀리우스는 일부 중대를 이 틈새로 보냈고, 다른 중대에게는 측면과 뒤에서 일제히 공격하여 적의 대형을 둘로 쪼개도록 명령했다. 싸움이 진행될수록 밀집대형의 틈이 더욱 벌어지면서 로마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sup>6)</sup>

셋째, 밀집대형은 기동력에 한계가 있었다. 밀집대형은 서로 조밀하게 서서 찌르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진했다. 무장 상태로 보면 길이가 5~6m가 넘는 장창으로 찌를 수 있는 범위까지 적에게 접근하는 전술을 취했다. 창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군이 피해를 적게 입고 적을 공격할 수 있지만, 창 무게도 고려해야 한다. 마케도니아의 장창은 두 손으로 들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행군이나 적군을 추격하면서 공격하기가 어려웠다. 한 마디로 밀집대형은 둔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밀집대형의 약점을 간파하고 중대를 군대의 기본적인 전투 단위로 편성한 사람은 카밀루스(Marcus Furius Camillus)였다고 전해진다. 군인들이 봉급을 받기 시작한 후 중대 편제로 되었는데, 봉급을 받게 된 때 카밀루스가 활동했던 베이이 공략 때였기 때문이다.<sup>7)</sup> 리비우스(Titus Livius)는

6) Plutarchos, *Aemilius Paulus* 19-20.

기원전 340년 라틴 동맹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로마인들은 전에 작은 원형 방패를 사용했다. 보급을 받기 시작한 후 그들은 원형 방패 대신 직사각형 방패를 만들었다. 전에는 마케도니아의 밀집대형과 같은 대형을 만들었으나 후에는 중대로 전투 대열을 구성했다... 장창 부대(*hastati*)로 불리는 제1열은 15개의 중대로 구성되었고, 각자 약간 떨어져서 배치되었다. 각 중대에는 20명의 경보병들(*velites*)이 있었고, 이들은 단지 장창과 작은 투창(*gaesum*)만 가지고 다녔다. 전투에서 전열을 형성하는 이들(장창 부대)은 복무 기간 동안 원숙해져 가는 젊은이들의 꽃이었다. 이들 뒤에 동일한 수의 중대가 오는데, 이 중대는 더 용감하게 싸울 나이의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력 부대(*principes*)로 불렸고, 직사각형 방패를 가지고 다녔으며, 가장 화려하게 무장했다. 이들 30개의 중대(장창 부대, 주력 부대)는 투창 부대 앞의 부대(*antepilani*)로 불렸다. 왜냐하면 중대기(*signum*) 뒤에 다른 15개 대열(*ordo*)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대(중대기 뒤의 대열)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각각 60명의 병사, 2명의 백부장(*centurio*), 1명의 기수(*vexillarius*)가 있어서 총 186명이었다. 첫 번째 부대는 용맹함이 증명된 제대군인인 제3열 부대(*trarii*)였고, 두 번째 부대는 더 젊지만 덜 뛰어난 로라리이(*rorarii*)였다. 세 번째 부대는 아켄시(*accensi*)였는데, 이들은 가장 적게 의지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제일 뒤에 배치되었다.<sup>8)</sup>

리비우스 글을 요약하면, 중대 중심의 군단에서 장창 부대, 주력 부대가 각각 15개 중대씩 있었고, 각 중대에 20명의 경보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7) Livius, *Ab Urbe Condita* 4.59.11, 5.7.12; Plutarchos, *Camillus* 2.2, 2.5.

8) Livius, *Ab Urbe Condita* 8.8.3-8, 26.4; E. Conway, "Restorations and Emendations in Livy VI-X," *Classical Quarterly* 12(1918), pp. 9-14; G. V. Sumner, "The Legion and the Centuriate Organization," *Journal of Roman Studies* 69(1979), p. 69; J. Warry, *Warfare in the Classical Worl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5), pp. 111-112, 126-127.

들 뒤에 중대기가 있었고, 중대기 뒤에 15개 중대가 더 있었다. 중대기 뒤에 있는 중대는 제대군인들로 이루어진 제3열 부대, 그 뒤에 더 젊지만 전투력이 다소 떨어지는 ‘로라리이’, 그 뒤에 가장 약한 ‘아켄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비우스가 중대기 뒤의 부대의 병력 수를 189((60+2+1)×3)명이 아닌 186명으로 적는 오류를 범했지만 그의 설명은 밀집대형에서 중대로 넘어가는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원전 6세기 세르비우스(Servius Tullius)의 개혁 이후 보병은 재산자격에 따라 제1등급에서 제5등급까지 구분되었다.<sup>9)</sup> ‘로라리이’와 ‘아켄시’는 세르비우스의 개혁에서 의존할 만한 병력이 아닌 제4, 제5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대의 구성에 관한 폴리비우스(Polybius)의 기록은 좀 더 간략하다.

로마시의 천부장(*tribunus militum*)은 (병사들에게) 군인 선서(*sacramentum*)를 하게 한 후 각 군단마다 무기 없이 모이는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그들을 해산했다. 군인들이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모였을 때 천부장들은 가장 젊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뽑아 경비병으로 삼았다. 그들 다음으로 장창 부대를 구성했다. 생애 절정기에 있는 사람들로 주력 부대를,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로 제3열 부대를 구성했다... 제3열로 알려진 고참자들은 600명, 주력 부대는 1,200명, 장창 부대는 1,200명, 가장 젊은 나머지 사람들로 경비병을 구성하는 식으로 나누어졌다. 만일 군단병이 4,000명 이상이었을 때 제3열 부대를 제외하고 동일한 수로 나누었다.<sup>10)</sup>

폴리비우스의 글에서 중대는 가장 가난한 경비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장창 부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경험 많은 주력 부대, 30대 후반 이상의 나이가 많고 노련한 제대군인들로 구성된 제3열 부대로 나누어졌다. 장창 부대는 장창(*hasta*)이 아니라 투창(*pilum*)

9) Livius, *Ab Urbe Condita* 1.43; Dionysius of Halicarnassus, *Roman Antiquities* 4.16-18.

10) Polybius, *Historiae* 6.21.6-10.



으로 무장했지만 초기에는 장창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주력 부대는 제1열이 아니라 장창 부대 뒤, 즉 제2열에 섰지만 글자 그대로 제1열에 섰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투창부대(*pilarii*)’로 불리는 제3열 부대는 찌르는 창으로 무장했고, 마리우스 시기 투창으로 바뀌었다.<sup>11)</sup>

각 중대는 2개의 백인대(*centuria*)로 구성되었고, 한 중대의 인원은 장창 부대와 주력 부대가 각각 120명, 제3열 부대가 60명이었다. 한 군단에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는 각각 10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장창 부대는 1,200명(120×10), 주력 부대는 1,200명(120×10), 제3열 부대는 600명(60×10)이었다. 1,200명의 경보병들은 따로 중대를 구성하지 않았고,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에 있는 총 60개의 백인대에 20명씩 나누어 소속되어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한 군단의 총 병력 수는 4,200명이 되었다.<sup>12)</sup>

전초병들에 대한 폴리비우스의 기록은 리비우스의 기록과 다르다. 폴리비우스의 기록에서 경보병들은 보통 전열에서 투창을 던지면서 전초전을 하고 뒤쪽 대열로 물러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열에 있던 장창 부대의 병사들이 앞으로 나왔다. 리비우스는 세 번째 열이 복잡한 형태인 것으로 말했으나 폴리비우스의 기록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리비우스가 이야기한 ‘로라리이’는 바로(Marcus Terentius Varro)의 글에서 전초전을 하는 병사로 묘사되어 있다. 바로는 “로라리이는 전투를 시작하는 병사들로서, 이슬을 의미하는 ‘로스(*ros*)’에서 따온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슬은 진짜 비가 내리기 전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토(Cato)는 아켄시를 시종들이라고 썼다. 이 말은 의견을 의미하는 ‘켄시오(*censio*)’, 혹은 결정을 의미하는 ‘아르비트리움(*arbitrium*)’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왜냐하면 아켄시우스가 모시는 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존재했기 때문이다”<sup>13)</sup>고 기록했다. 이를

11) Varro, *De Lingua Latina* 5.89; Polybius, *Historiae* 6.23.

12) Polybius, *Historiae* 3.107.10-12.

근거로 볼 때 리비우스가 말한 ‘로라리이’와 ‘아켄시’는 전초병들과 시종들로서 전투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크게 의존할 만한 병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폴리비우스가 말한 경보병들로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기동력을 갖춘 적을 대적하게 되고 밀집대형의 약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중대로 편성했다면 중대가 가지는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점은 중대의 전투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밀집대형은 전체 병력이 동시에 전투에 투입되지만 중대는 순차로 투입되는 방식이었다. 우선 전투는 경보병부터 시작되었다. 경보병들은 전초전을 통해 적의 경보병에게 타격을 가하거나 적의 대형을 무질서하게 만들어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시도했다.<sup>14)</sup> 경보병을 활용한 전술은 기원전 211년 한니발(Hannibal Barca)에 동조한 카푸아(Capua)를 공격할 때 나타났다. 로마는 가장 가볍고 발 빠른 경보병들을 뽑아 한 명씩 기병의 말 뒤에 앉혔다. 전장에 와서 신호가 떨어지면 그들은 말에서 내려 적의 기병을 향해 가벼운 투창을 여러 개 던졌다. 예기치 않은 공격에 놀란 적의 기병들이 도망갔고, 로마의 기병이 추격·살해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보병을 기병과 결합한 이 전술은 나비우스(Quintus Navius)라는 백부장이 고안했고, 이 공로로 그는 명예로운 칭송을 받았다.<sup>15)</sup>

전초전을 마친 경보병들이 중대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물러나면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가 삼중 축(*triplex acies*)으로서 순차적으로 공격했다.<sup>16)</sup> 이들이 서는 대형을 볼 때 주력 부대는 장창 부대의 대형 사이에 서지만 장창 부대와 구분될 정도로 뒤에 떨어져 있었다. 제3열 부대 또한 주력 부대와 떨어져 주력 부대 대형 사이에 서기 때문에 장창 부대의 대형과는 일직선으로 되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나가 싸우는 장창 부대가

13) Varro, *De Lingua Latina* 7.58.

14) Frontinus, *Strategemata* 2.3.17.

15) Livius, *Ab Urbe Condita* 26.4.4-10.

16) Livius, *Ab Urbe Condita* 23.29.3; Caesar, *De Bello Gallico* 1.24; *De Bello Africo* 60.3; *De Bello Civili* 1.41; Frontinus, *Strategemata* 2.3.17, 2.3.22.

전투를 하지 않고 도망가기란 쉽지 않았다. 전투 양상을 지켜보며 병사들을 독려하는 지휘관들 뿐 아니라 장창 부대 뒤에 주력 부대와 제3열 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대 중심의 군대에서도 후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대로 후퇴할 수 없었다. 기원후 70년 예루살렘(Jerusalem) 전투에서 전열의 일부 병사들이 살해되었을 때 대다수의 병사들이 후퇴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후열의 병사들이 곧바로 전진해 와서 후퇴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sup>17)</sup>

전투가 시작되면 장창 부대의 병사들은 적이 투창의 사정거리인 약 30m 거리로 가까이 왔을 때 가벼운 투창과 무거운 투창을 연이어 던졌다. 적과 대적할 때는 검으로 백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투창을 모두 던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투창을 가지고 있다면 검을 쥘 수 없고, 왼손에 가진다면 투창의 길이로 인해 방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창을 던질 때 손을 들어 몸의 체중을 실어야 하므로 병사들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다. 적어도 앞뒤, 좌우의 사람과 각각 약 1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했다.<sup>18)</sup> 투창을 던지고 난 후 검으로 백병전을 했는데, 이때는 간격을 좁혔다. 군인들 각자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응집력이 떨어지고, 적군이 대열 사이로 밀려들어와 대형을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병전에서 적을 쓰러뜨리면 적의 대형으로 가는 길을 뚫으면서 전진했다.

백병전에서 검으로 찌르거나 베기도 하고, 방패 중앙에 있는 청동 돌기(*umbo*)로 일격을 가하기도 했다. 서로 몸으로 부딪치는 백병전은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하므로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었다. 장창 부대가 적을 밀어붙이면서 힘을 소모하여 새로운 병사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장창 부대로 승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트럼펫(*tuba*)으로 장창 부대를 불러들였다.<sup>19)</sup> 장창 부대는 전투를 멈추고 뒤로 이동했다. 이동방식은

17) Polybius, *Historiae* 18.30; Josephus, *Bellum Judaicum* 6.76-78.

18) Polybius, *Historiae* 18.3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14-15.

장창 부대에 소속된 각 중대 중 뒤의 백인대(*posterior centuria*)가 먼저 주력 부대 사이의 공간을 통해 뒤로 가고, 앞의 백인대(*prior centuria*)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장창 부대가 제3열 부대 뒤쪽으로 빠지면 주력 부대가 전면에 나서서 싸웠다. 주력 부대의 전투 방법은 장창 부대의 방식과 같았다.

만일 적이 주력 부대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다면 주력 부대는 제3열 부대 사이의 공간을 통해 장창 부대 뒤에 가서 섰다.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순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제3열 부대는 왼쪽 무릎을 꿇고, 창 의 끝을 비스듬히 위로 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주력 부대가 후퇴하면 제3열 부대가 전투를 담당했다. 병력의  $\frac{2}{3}$  이상을 차지하는 경보병, 장창 부대, 주력 부대가 승부를 내지 못하고 제3열 부대가 나설 때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할 병력은 제3열 부대뿐이다’라는 말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말이다. 제3열 부대의 전투 방식은 기존의 장창 부대와 주력 부대가 한 방식과 같았다. 제3열 부대로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장창 부대부터 다시 전투에 임했다.<sup>20)</sup>

군사령관의 능력은 언제 장창 부대를 철수시키고, 주력 부대를 투입하는가에 달려있었다. 너무 빨리 철수시키면 뒤의 부대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들마저 승부를 내지 못할 경우 새로이 투입할 병력이 많지 않게 된다. 반면 너무 늦게 철수시키면 장창 부대가 적의 압력에 굴복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부대를 투입해도 승리를 얻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전투 동안 군사령관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가 대열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병사들의 사기를 돌올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병사들을 독려했다.<sup>21)</sup> 그는 돌아다니면서 전투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19) Polybius, *Historiae* 15.14.3.

20) Livius, *Ab Urbe Condita* 8.8.3-19; Varro, *De Lingua Latina* 5.89;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16-17.

21) Plutarchos, *Aemilius Paulus* 19.3; Appianus, *Bellum Civile* 4.128.

다른 명령을 하달했고, 군인들의 행동을 파악하여 전투 후 상과 벌을 내렸다. 군사령관이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의 표적이 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말을 타고 붉은 망토와 화려한 무장을 한 지휘관의 모습은 적의 눈에 띄기 쉬웠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병사들을 따로 두었다.<sup>22)</sup>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 순으로 서고, 서는 순서대로 순차로 공격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방식이고, 실제 전투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형에 따라 바꿀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원전 202년 대스키피오(P. C. Scipio Africanus)와 한니발이 맞붙은 자마(Zama) 전투에서 로마군은 전열 사이에 후열이 서지 않고 전열 바로 다음에 후열이 서는 형태를 취했다. 대스키피오는 전열에 장창 부대를 세우고, 그들 뒤 좀 떨어진 곳에 주력 부대를 배치하되, 기존의 로마 관행처럼 장창 부대 사이에 두지 않고 장창 부대와 일직선으로 서도록 했다. 이는 일직선으로 있는 로마군 사이사이로 적의 전투 코끼리가 빠져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작전은 주효하여 코끼리가 로마군 대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돌진할 때 창이나 검으로 찌르면 코끼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왔던 길로 되돌아가 카르타고군의 대형을 흩어놓거나 계속 돌진하여 로마군 대형을 빠져나갔다. 또 기원전 181년 북서 이탈리아의 리구리아(Liguria)인에 대한 전쟁에서 로마군은 적이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 주력 부대를 제1열에, 장창 부대를 제2열에 배치했다. 전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순서에 따라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23)</sup>

전투 방식에서 보듯이 중대 편제는 밀집대형의 약점을 극복한 것이었다. 밀집대형에 비해 중대가 가지는 이점은 첫째, 일부 대열의 파괴가 전체 대형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대는 전체 대열이 동시에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순차로 공격했다.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 순

22) Caesar, *De Bello Gallico* 2.25-26.

23) Polybius, *Historiae* 11.33, 15.9.1-10; Livius, *Ab Urbe Condita* 40.27.5-6.

으로 전쟁할 때 보병의 절반 이상이 자리를 지키고, 실제 전투에 임하는 인원은 많지 않았다. 장창 부대의 병사들이 적과 싸우는 동안 주력 부대의 병사들은 재빨리, 질서 있게 전진하면서 투창으로 방패를 치면서 장창 부대를 지원하는 고탐을 질렀다. 투창과 화살이 날아오고, 검과 방패로 백병전을 벌이는 장창 부대의 모습은 이를 보고 있는 주력 부대와 제3열 부대의 병사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주었다.<sup>24)</sup>

중대 편제에서 전열이 싸우는 동안 후열은 전투 준비와 대형 전개를 하고 있다가 전열이 후퇴한 후 투입되었다. 때문에 전열의 패배가 전체 군대의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원전 216년 칸나이(Cannae) 전투에서 바로(Gaius Terentius Varro)는 중대의 이점을 살리지 못해 패배했다. 그는 중대의 각 대열을 거의 밀집대형과 같이 조밀하게 서도록 했는데, 이것은 한 쪽의 대형이 붕괴되면 그 무질서가 전체 대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한니발이 적은 인원으로 로마군을 포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투 대형의 약점을 잘 간파했기 때문이다.<sup>25)</sup>

둘째, 중대는 지형의 제약을 덜 받았다. 밀집대형은 조밀하게 서 있는 형태에서 전투력이 증강되었기 때문에 전체 대형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반면, 중대는 각 대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다가 지형이 고르지 못하면 그 간격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형으로 인한 전투력 감소는 적었다.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전투 중의 하나는 기원전 197년 마케도니아와 로마가 싸운 키노스케팔라이(Kynoskephalai) 전투이다. 키노스케팔라이, 즉 ‘개의 머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는 가운데 평지가 있었고, 그 평지는 넓지 않았다. 전투 초반 오르막에 포진해 있던 적의 우익은 로마군의 좌익에 대해 이기고 있었다. 오르막 위에서 밑으로 공격할 경우 화살, 창, 검의 공격력이 배가되기 때문에 밑에서 위쪽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승산이 있었

24) Polybius, *Historiae* 15.12.8, 15.13.3.

25) Polybius, *Historiae* 3.113.3; Livius, *Ab Urbe Condita* 22.47.5.

다. 반면 적의 좌익은 지형이 고르지 못한 탓에 제대로 대형을 펼칠 수 없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로마군의 우익은 적의 좌익을 먼저 무너뜨린 후 일부 병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좌익으로 갔다. 이들이 승리하고 있던 적의 우익의 측면을 공격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sup>26)</sup>

셋째, 중대는 밀집대형보다 기동성이 있었다. 로마군의 투창은 1.37~1.48m의 길이로서 장창보다 가벼웠다.<sup>27)</sup> 또 투창이기 때문에 사정거리인 30m 정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적과 떨어져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아군의 안전이 보장되었다. 밀집대형은 투창의 공격을 받아 죽거나 다친 병사들로 인해, 또 자연적인 방해물로 인해 대열에 간격이 생길 수 있었다. 게다가 투창은 적의 방패에 닿으면 충격으로 청동으로 된 창부분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제거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전략은 일부 중대가 이동하여 육중한 밀집대형의 측면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검을 든 로마인이 유리했다. 왜냐하면 밀집대형의 군인들은 장창으로 인해 방향 전환이 어려웠고, 장창에 의존했기 때문에 검을 들고 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원형 방패보다 로마의 직사각형 방패가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플루타르코스(L. Mestrios Plutarchos)는 밀집대형의 장단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밀집대형은 하나의 단체로 있을 때, 하나의 대형 속에서 방패로 서로 조밀하게 묶여 있을 때 무적의 힘을 가진 동물과 같다. 그러나 대형이 무너져 쪼개지면 병사들은 힘을 잃어버린다. 이유는 그들이 (장창과 방패로) 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힘이 개개의 병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형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의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sup>28)</sup>

26) Plutarchos, *Flaminius* 8.1-5.

27) Polybius, *Historiae* 6.22.1-23.16.

28) Plutarchos, *Flaminius* 8.1-5.

밀집대형에 비해 로마의 중대 대형은 지형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유연성이 있었다.

로마가 중장보병 밀집대형에서 중대 편제로 바꾼 것은 기동력 있는 적에게 대항하면서 밀집대형의 약점을 간파했고,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유연성과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로마는 에트루리아로부터 밀집대형 전술을 배웠듯이 갈리아, 삼니움, 카르타고와 전쟁하면서 그들의 전투 장비와 전술을 모방했다. 갈리아나 삼니움과 싸우면서 둔하고 지형에 얽매이는 밀집대형의 허점을 알게 되었다. 또 한니발과 전쟁하면서 지휘관들을 자주 교체하면 그들의 전쟁 경험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과 병력이 열세라도 조직적인 훈련과 지휘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이처럼 로마의 군 체제는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약점을 수정하면서 완성된 것이었다.

### 3. 마리우스 군제 개혁의 효과

중대 중심의 군 편제가 대대로 재편된 것은 마리우스 때였다.<sup>29)</sup> 마리우스는 20대에 천부장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군 경험을 쌓았다. 그는 유구르타 전쟁을 지휘했던 메텔루스(Quintus Caecilius Metellus)의 후임으로 그 전쟁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sup>30)</sup> 마리우스가 기존의 중대에서 대대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보는 이유는 그가 지휘한 유구르타 전쟁과 게르만족에 대항한 전쟁 이후 진초진을 하는 경보병과 세 개의 대열로 싸우는 중대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1)</sup> 폴리비우스는 기원

29)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51.3, 100.4.

30)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46, 64, 82.

31)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46.7, 49.7.



전 3세기 말 대스키피오가 히스파니아에서 전쟁할 때 대대를 형성했다고 기록했다.<sup>32)</sup> 그러나 기원전 2세기 초 로마가 마케도니아와 전쟁할 때 여전히 중대 중심이었다.<sup>33)</sup> 아마도 대스키피오가 대대로 편성한 예는 단지 하나의 실험적인 전술이었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다. 대대가 로마 군대의 기본적인 전투 단위로 되었던 것은 마리우스 때 와서 일 것이다.

마리우스 이후 군단의 구성을 보면, 한 군단은 10개의 보병대로 나뉘었고, 각 보병대는 6개의 백인대로 세분되었다. 한 개의 백인대는 13명씩 6열로 되어 있는 78명의 병사와 백부장 1명, 부관(*optio*) 1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었고, 한 개 보병대의 인원은 총 480(80×6)명이었다. 각 백인대는 다시 8명으로 구성된 10개의 분대로 나누어졌다. 대대로 편성한 후 중대에 관한 흔적은 차츰 사라졌지만 제정기에도 중대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 제정기의 사가인 겔리우스(Aulus Gellius)는 마리우스 이후 한 군단이 60개의 백인대, 30개의 중대, 10개의 대대로 구성되었다<sup>34)</sup>고 했다. 60명의 백부장의 칭호도 중대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대에 대한 소속감은 없었던 듯하다. 제정기의 많은 묘비에 각자가 소속된 보병대와 백인대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소속 중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sup>35)</sup>

마리우스가 대대로 개편한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었다. 기원전 3세기 말부터 로마는 외적과 끊임없이 전쟁했다.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201년),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기원전 200-197년), 시리아 전쟁(기원전 192-189년),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기원전 171-168년), 제3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149-146년) 등 전쟁이 지속되었고, 연이은 전쟁은 로마에 극심한 빈부 격차를 가져왔다. 특히 포에니 전쟁과 마케도니아

32) Polybius, *Historiae* 11.33.

33) Polybius, *Historiae* 18.12.

34) Gellius, *Noctes Atticae* 16.46.

35)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p. 174.

전쟁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동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조공과 세금으로 국가 전체의 부는 꾸준히 증가했다. 원로원 계층은 전리품으로, 속주 총독직으로 부를 획득했다. 기사 계층 또한 식량, 무기, 의복을 군대에 공급하거나 세금 징수원으로, 대금업자로, 지주로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돈을 안전하게 투자할 곳을 찾았고, 가장 좋은 투자처는 토지였다. 이들은 대토지농장(*latifundium*)을 소유했고, 전쟁 포로로서 값싼 노동력인 노예를 이용하여 더욱 더 부를 축적했다.

상류층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한 반면, 병사로서 참전했던 농민들은 몰락했다. 오랜 기간 전장에 나가있는 동안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집은 파괴되었다. 재생산 비용과 재건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럴만한 돈이 없었다. 결국 토지를 팔고 농촌을 떠나 로마시로 이주하여 빈민 생활을 시작했다. 전쟁의 열매는 상류층이 갖고, 목숨을 바치면서 싸웠던 전쟁의 주역은 몰락한 것이다. 농민의 몰락으로 군에 입대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부족했고, 이는 곧바로 로마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라쿠스 형제(Tiberius Sempronius Gracchus, Gaius Sempronius Gracchus)가 상류층이 점유한 공유지를 자영농에게 분배함으로써 자영농을 재건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상류층의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원전 2세기를 거치면서 징집할 군인들의 수가 줄어들자 그 수를 늘리기 위해 재산자격은 꾸준히 낮추어졌다. 기원전 6세기 밀집대형으로 편성될 때 11,000아스(as)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군복무가 면제되었다.<sup>36)</sup> 그러나 칸나이 전투로 심각한 인력 손실을 입은 후 군복무에 필요한 재산자격은 완화되었다. 기원전 215년 경 최소한의 재산자격은 4,000아스였고, 그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수병으로 복무했다.<sup>37)</sup> 기원전 129년 복무에 필요한 재산자격은 1,500아스로 낮아졌다.<sup>38)</sup> 유구르타 전쟁

36) Livius, *Ab Urbe Condita* 1.43.1-9.

37) Polybius, *Historiae* 6.19.2.

때 마리우스는 메텔루스가 지휘했던 2개 군단을 넘겨받았지만 새로운 군대를 더 징집할 필요성을 느꼈다. 원로원이 군대를 일부만 모집하도록 했지만 마리우스는 원로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원으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병으로 군대에 입대할 것을 호소했다.<sup>39)</sup> 그가 법으로 재산자격을 낮추거나 없애지는 않았지만, 이후 재산자격은 군 입대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산이 없는 평민들에게 군 입대를 허용하면서 기존의 중대 중심의 군 편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는 재산과 나이에 따라 전투 장비와 대열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이다. 마리우스는 재산이 없는 사람을 군에 입대시키고 난 후 이들 무산자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 지 고민했을 것이다. 재산이 없으니 갖출 전투 장비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초전을 하는 경보병으로 앞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무산자들은 병사로서 복무하다 망했기 때문에 재산만 없다 뿐이지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전초병으로 편성한다면 전투력 낭비이다. 이들을 다른 군단병과 섞을 필요가 있었고, 그렇다면 재산과 나이에 따라 대열을 정하는 기존의 중대로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전체 군단병이 동일한 전투 장비를 갖춘 대대 중심으로 군대를 재편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당시 군단병의 전투 장비는 청동 투구(*gales*), 사슬 갑옷(*lorica hamata*), 직사각형 방패(*scutum*), 히스파니아 검(*gladius hispaniensis*), 단도(*pugio*), 무게가 다른 두 개의 투창(*pilum*)이었다. 경비가 많이 들지만 사슬 갑옷이 보편적으로 되었고, 백부장을 제외하고 정강이받이는 사라졌다.<sup>40)</sup> 무기는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경비는 군인들의 봉급에서 공제되었다.<sup>41)</sup> 동일

38) Cicero, *De Republica* 2.22.40.

39)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82-86.

40) Polybius, *Historiae* 6.22.1-23.16; Varro, *De Lingua Latina* 5.115-116; Livius, *Ab Urbe Condita* 8.8.3-19, 9.40.3, 9.40.17, 10.39.12; Plutarchos, *Marius* 25.1-2; Juvenalis, *Satires* 6.256-257.

한 장비로 무장했기 때문에 기존의 경보병,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와 같은 구분이 필요 없었다. 가난한 군인이었던 경보병들도 동일한 장비를 갖추었고, 제3열 부대는 장창이 아니라 다른 군인과 마찬가지로 투창으로 무장했다. 동맹국 전쟁 이후 이탈리아 포 강 이남의 모든 공동체에 로마 시민권이 부여됨에 따라 과거의 동맹군도 로마 군단에 편입되었다.

마리우스가 대대로 개편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중대의 약점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마리우스가 로마군의 약점을 느끼게 된 것은 유구르타와 게르만족과 같은 기동력을 갖춘 적을 상대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그러한 적을 대항할 때 중대가 순차로 공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또 순차 공격이었기 때문에 급습과 배후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217년 트라시메네(Trasimene) 전투이다. 한니발의 매복과 기습 공격 작전이 주효하면서 행군하고 있던 로마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대별로 대열을 지킬 수 없었고, 군기 앞과 뒤의 병사들로 구분할 수도 없었다. 전투 대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 순서로 싸울 수 없었다. 닥치는 대로 적에게 대항했지만 체계적으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군은 대패했다.<sup>42)</sup> 또 중대는 대형 전개에 시간이 걸리고, 실제 전투에 임하는 병력이 전체 군단병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었다.

마리우스의 대대 편제는 중대 편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이점은 첫째,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모든 병사들이 동일한 전투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전투 대형은 삼중을 비롯하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기원전 49년 일레르다(Ilerda) 전투에서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 편인 아프라니우스(Lucius Afranius)는 5개 군단을 이중 축(*duplex acies*)으로 정렬했다. 카이사르(Gaius

41) Livius, *Ab Urbe Condita* 4.59.11, 5.7.12; Plutarchos, *Camillus* 2.2, 13.1; Polybius, *Historiae* 6.39.12-15; Plinius, *Naturalis Historiae* 33.13.44.

42) Polybius, *Historiae* 2.33, 15.9.1-10; Livius, *Ab Urbe Condita* 22.5.7, 40.27.5-6.

Julius Caesar)가 삼중 축으로 대형을 만들 때 첫 번째 열에는 4개 보병대를,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는 각각 3개 보병대를 배치했고, 궁수와 투석병은 대형 중앙에 끼워 넣었고, 기병은 양익에 포진시켰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Pharsalus)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세 번째 열에 있던 병사들 중 일부를 빼 네 번째 열을 형성, 사중축(*quadruplex acies*)으로 대형을 짰다. 아프리카 전쟁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병력이 적어 단 한 개의 축(*simplex acies*)으로 대형을 구성했다. 크라수스(Marcus Licinius Crassus)는 아퀴타니아(Aquitania)인과의 전쟁에서 적에 비해 병력이 적어 이중 축으로 배치했다.<sup>43)</sup>

대대 편제는 적의 수나 지형에 따라 몇 개 군단이 대규모 대형을 전개하여 통합적인 작전으로 적을 공격하거나 몇 개 대대만 파견하여 적을 추격·포위하기도 했다.<sup>44)</sup> 또 중대에서는 주력 부대나 제3열 부대와 같이 우수한 특정 중대를 빼내어 적의 측면이나 배후를 공격해야 하지만 대대 편제에서는 훈련 상태와 전투 장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무 보병대나 빼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2년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와 브루투스(Marcus Iunius Brutus)가 대결한 필리피(Philippi) 전투에서 양측 군인들은 모두 일반적인 책략과 기술에 의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동일한 전투 방식을 사용하고 동일한 훈련을 받은 로마군이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적군이 가까이 왔을 때 검으로 적을 찔러 죽이고, 적의 대형을 파괴시키고자 했다. 양측이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안토니우스가 지휘하는 옥타비아누스(Gaius Octavianus)의 병사들은 안토니우스의 명령에 따라 즉각 적의 대형 뒤로 가서 공격했다. 예기치 않은 공격에 적은 우왕좌왕했고, 대형은 무너졌다.<sup>45)</sup> 대대 중심의 편제는 후열이나 전

43) Caesar, *De Bello Civili* 1.83, 3.89; *De Bello Gallico* 1.24, 3.24; *De Bello Africo* 13.2.

44) Caesar, *De Bello Gallico* 1.21, 1.25, 2.25-27, 3.1, 3.11, 5.24, 6.36, 6.44, 7.65, 7.83, 7.86-90.

45) Appianus, *Bellum Civile* 4.128.

열 상관없이 적에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리피 전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리우스 개혁 이후의 전투 방식은 투창과 화살, 돌을 던지고 난 후 검을 들고 백병전을 하는 중대 중심의 전투 방식과 동일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대규모로, 혹은 소규모로 나누어 동시에 돌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대와 달랐고, 조밀하게 서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병사들이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적과 백병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밀집대형과도 달랐다. 제정기에도 투창을 던지고 백병전으로 이어지는 전투 방식은 큰 변화 없이 사용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보조군(*auxilia*)과 기병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군단병을 어디에 배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대형을 전개할 수 있었다.<sup>46)</sup>

둘째, 병사들을 지휘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군사령관의 입장에서 과거 각 군단이 30개 중대로 구성되었을 때보다 10개의 대대로 있을 때 명령을 전달하거나 통제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또 중대에서는 중대마다 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하는 명령이 다를 수 있었지만, 대대에서는 하나의 명령이 전체 군단병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중대에서는 군사령관이 전투 중에 있는 부대를 지휘하느라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뒤쪽의 부대에 신경을 쓸 수 없었지만 대대로 편제되었을 때는 전체 군단병들이 전투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군단병들을 모두 감독할 수 있었다.

셋째, 병력 증강을 꾀할 수 있다. 재산이 없는 평민들이 군에 입대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재산자격이 사라짐으로써 시민권을 가진 로마 인이라면 누구든지 입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많은 병력을 모집할 수 있었다. 군단의 수는 제2차 포에니 전쟁기 20~23개 정도였지만<sup>47)</sup>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경쟁할 때 최소한 4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sup>48)</sup> 기

46) Caesar, *De Bello Gallico* 2.25, 2.27, 3.25, 5.43-44, 7.24; Tacitus, *Annales* 2.11, 2.20-21; *Historiae* 2.42.

47) Livius, *Ab Urbe Condita* 26.1.13;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p. 32; J. Penrose(ed.), *Rome and her Enemies* (Oxford: Osprey Publishing Ltd, 2005), pp. 26-27.

원전 43년 안토니우스가 집정관들과 옥타비아누스에 대항하여 무티나(Mutina)에서 싸울 때 서부 지역에 총 42~45개의 군단이 있었다. 기원전 40년 페루시아(Perusia) 전투를 할 당시 안토니우스는 동생과 지지자들의 군단을 포함하여 30개 정도의 군단을 지휘했다. 이 전투 후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측에서 도주한 병사들로 인해 40개 이상의 군단을 통솔했다. 기원전 36년 섉스투스 폼페이우스(Sextus Pompeius)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의 군단은 45개로 증가했다. 반면 안토니우스 측은 페루시아 전투와 파르티아(Parthia)에서의 병력 손실과 도주로 23개 정도만 남아 있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Actium) 해전으로 내란이 종결된 후 안토니우스의 병력까지 포함하여 옥타비아누스 휘하에 있는 병력은 총 60개가 넘었다.<sup>49)</sup> 포에니 전쟁기와 비교하면 내란을 거치면서 병력의 규모가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경험 있는 군인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폴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공화정기 군인의 복무 기간이 기병은 10년, 보병은 16년이었고, 위기 시 보병은 20년 복무해야 했다.<sup>50)</sup> 전쟁이 없으면 군대를 해산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그 정도의 기간을 복무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징집되어도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했다. 이는 군 입대의 의무를 가지는 17세에서 46세까지 보병의 경우 군인으로 있었던 기간이 최소한 16년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sup>51)</sup> 마리우스 개혁 이후 재산 없

48) Suetonius, *Caesar* 24, 29; Plutarchos, *Pompeius* 58; Caesar, *De Bello Africo* 1.5; *De Bello Civili* 3.88; F. E. Adcock, "Legions in the Civil War,"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I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pp. 898-899.

49) Appianus, *Bellum Civile* 5.3, 5.50-51, 5.53, 5.127; Cassius Dio, *Roman History* 48.2.3, 48.6.1-5; Augustus, *Res Gestae Divi Augusti* 3.3; P. A. Brunt, *Italian Manpower 225 B.C.-A.D. 14* (Oxford: Clarendon Press, 1971), pp. 480-507, 687-693.

50) Polybius, *Historiae* 6.19.3-8.

51) P. A. Brunt, *Italian Manpower 225 B.C.-A.D. 14*, p. 401;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pp. 33-34.

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는 전리품과 제대 시 군사령관들이 제공해 줄지도 모르는 땅을 위해 오랜 복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직업군인처럼 오랜 기간 복무하는 군인의 등장은 전투력 면에서 훨씬 더 유익했다. 그들의 전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고, 오랜 기간 복무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 수 있었다. 이는 로마 군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병사들 간의 유대감이 증대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8명으로 구성된 분대 병사들의 동질감은 중대 편제에서도 뛰어났다. 동일 분대의 병사들은 주둔지의 한 막사에서 같이 숙식했고, 무거운 조리 기구도 분대별로 가지고 다녔다. 전체 군단병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지 않고 분대별로 하는 이유는 큰 식당이나 전체 병사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할 시설이 주둔지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 가능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 병사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따른 편리함보다 분대별로 식사함으로써 얻는 병사들의 동료애를 더 중시했던 것 같다. 분대별로 식사하면서 그 날의 임무나 불평을 이야기하고 여가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동료 의식은 상당했다. 한 분대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콘투베르니움(*contubernium*)이 같은 막사를 사용하는 동료들을 지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sup>52)</sup>

대대 편제에서는 동일 분대 병사들 뿐 아니라 전체 군단병들 간의 동질감도 증대되었다. 동일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동일한 훈련을 받고, 동일한 독수리 군기(*aquila*) 아래 모이는 병사들 간의 유대감은 소유 재산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고, 중대마다 고유의 군기가 따로 있는 중대 중심의 편제 때보다 컸을 것이다. 중대 편제에서 경비병,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는 막사도 따로 사용했다.<sup>53)</sup> 또 가난하여 몸을 모두 보호하기에

52) A. Goldsworthy, *Roman Warfare*, p. 94.

53) Polybius, *Historiae* 6.24.6, 6.27.1-33.12, 6.41.1-12; Plinius, *Naturalis Historiae*



는 작은 원형 방패를 들고 전초전을 해야 하는 경보병과 소유 재산이 있어서 직사각형의 방패와 투창을 들고 있는 장창 부대와 주력 부대의 병사들<sup>54)</sup> 간에 거리감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재산 없는 사람들도 군에 입대하면서 모두가 동일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각 대대별로 막사를 배치했기 때문에<sup>55)</sup> 최소한 빈부 격차로 인한 차별은 없어지고, 그와 함께 동질감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동질감으로 인해 군단병들이 단결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지만<sup>56)</sup> 대형 위주의 전장에서 동료애는 대형 유지에 필수적이었고, 치열한 백병전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었다. 때문에 병사들 간의 유대감 증대는 곧바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마리우스의 개혁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마리우스 개혁의 약점 중 하나는 대대 중심의 보병을 강화하고 기병을 약화시킴으로써 기병이 우세한 적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마리우스가 기병을 약화시켰다는 근거는 유구르타 전쟁 후 로마 기병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sup>57)</sup>는 점이다. 또 카이사르가 게르만족인 아리오비스투스(Ariovistus)와 회담할 때의 일을 근거로 한다. 아리오비스투스가 기병과 함께 올 것을 요구했을 때 카이사르는 갈리아인 기병을 믿을 수 없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제10군단의 일부 보병들에게 말을 타게 하여 기병대로 활용했다.<sup>58)</sup> 로마인 기병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일부 보병을 기병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10.4.16.

54) Varro, *De Lingua Latina* 5.115; Dionysius of Halicarnassus, *Roman Antiquities* 23.2; Livius, *Ab Urbe Condita* 9.40; Plutarchos, *Romulus* 21.1.

55) Josephus, *Bellum Judaicum* 3.5.1.

56) Suetonius, *Caesar* 69-70; *Augustus* 24; Caesar, *De Bello Africo* 46, 54; Frontinus, *Strategemata* 4.1.37.

57)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95.

58) Caesar, *De Bello Gallico* 1.42, 7.13, 7.66.

마리우스가 기병의 비중을 감소시킨 이유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전쟁의 승패는 대부분 보병에서 결정되었고 기병은 보조적인 역할만 했었기 때문이다.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로마는 근동의 넓은 초원 지대를 배경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육전으로 조금씩 영토를 넓혀 나갔다. 에트루리아, 삼니움, 마케도니아, 시리아 등은 보병 위주였고, 카르타고는 함대 위주였기 때문에 로마는 기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밀집 대형이든, 중대와 대대 대형이든 대부분 기병은 보병 대형의 취약점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했다. 대형에서 보병들이 주로 앞을 향해 전쟁하기 때문에 대형의 측면과 배후가 약했고, 이 취약 지점에 기병을 배치해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자연히 기병보다 보병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기병 약화의 또 다른 이유는 로마인 기병의 비효율성이 오랫동안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과 유구르타 전쟁에서 북부 아프리카 누미디아(Numidia)인 기병의 효율성은 검증되었다. 누미디아인은 유목민인 베르베르(Berber)족으로서 말이 풍부해서 말 위에서 자랐다고 할 정도로 말을 능숙하게 다루었고, 고삐와 재갈 없이도 말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들은 갑옷을 입지 않고 투창과 가벼운 방패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전초전, 매복 작전, 추격전에 능했다. 로마인들이 누미디아인이나 히스파니아인처럼 말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했다. 전진, 추격, 후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말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했고, 평지, 습지, 산악지역 할 것 없이 말이 모든 지형에 익숙하도록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훈련해야 했다. 대부분 보병에서 승패가 갈리고 이탈리아 동맹국 기병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sup>59)</sup> 그러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로마인 기병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탈리아 동맹국 기병에 비해 로마인 기병이 허약했고, 기병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 더욱 보병에 주력하게 되었고, 이는 로마인 기병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트리

59) Livius, *Ab Urbe Condita* 23.5.15; Lucilius, *Satires* 506-508.

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마리우스는 비효율적인 로마인 기병을 축소하고, 이탈리아 동맹국과 갈리아, 게르마니아 등 타 지역의 기병에 더욱 더 의존했다.

기병을 타국에 의존하게 되면 필요할 때, 필요한 수만큼 기병을 징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로마인 보병이 적의 기병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로마가 기병이 우세한 파르티아와 벌린 기원전 53년 카라이(Carrhae)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기병 약화로 인한 전술 부족이 한 원인이었다. 당시 로마의 지휘관인 크라수스는 60대였지만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Spartacus)의 노예 반란을 진압한 후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없었다. 그는 7개 군단과 4,000명의 경비병, 갈리아 기병 1,000명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 출신자들로 구성된 4,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파르티아의 지휘관인 수레나(Surena)는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젊은이였지만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뛰어난 전사였다. 그는 보병 10,000명, 낙타 부대 1,000명, 중장 기병 1,000명, 기마 궁수 6,000명을 지휘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로마군은 돌격했고, 파르티아군은 흩어지는 듯하다가 로마군을 에워싸고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적은 특별한 대형 없이 로마군 주위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로마군이 화살이나 투창을 맞히기가 어려웠던 반면, 로마군은 대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적의 화살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황한 크라수스는 아들인 푸블리우스(Publius Crassus)에게 백병전을 하라고 지시했고, 푸블리우스는 1,000명의 갈리아 기병, 500명의 궁수와 8개 보병대를 이끌고 파르티아군에게 돌격했다. 파르티아군은 달아났고, 푸블리우스는 자신감을 얻어 적을 추격했다. 그러나 한참을 추격한 후 도망가는 줄 알았던 파르티아군이 방향을 획 돌려 로마군을 향해 돌진했고, 어디선가 나타난 파르티아 대군이 합세하면서 로마군은 위협에 빠졌다. 파르티아군의 창과 화살을 피하기 위해 로마군은 한 곳으로 몰려들었고, 이것은 적의 창과 화살을 더욱 많이 맞는 결과를 초래했다. 화살이 양손에 박힌 푸블리우스는 자살했고, 살아남아 적의 포로가 된 로

마군은 5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다시 크라수스 쪽으로 돌아온 파르티아군은 재공격을 감행했다. 중장 기병이 로마군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고, 기마 궁수는 모여 있는 로마군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그러는 사이 밤이 되었고, 파르티아군이 자신들의 주둔지로 돌아가자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한 크라수스는 군대와 함께 인근 카라이 성으로 도피했다. 로마군의 도피 사실을 알게 된 수레나 장군은 성으로 돌진해 왔고, 이 소식을 들은 로마군은 다시 야밤에 카라이 성을 나왔다. 그러나 파르티아군은 로마군을 추격해 왔고, 크라수스를 포함한 다수의 로마군을 살해했다. 간신히 살아남은 2,000명은 사막을 헤매다 죽었고, 10,000은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었다.<sup>60)</sup>

로마는 크라수스의 대패에서, 또 이후의 싸움에서 파르티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우선 로마군 기병들이 방패를 항상 지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패를 몸에서 놓지 않는다면 장창으로 무장한 파르티아의 중장 기병에 대항해 목숨을 보호할 수 있고, 방패를 가지지 않는 파르티아의 기마 궁수를 집중공격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다. 카라이 전투에서 대다수의 로마군은 중장 기병의 장창과 기마 궁수의 화살에 사망했다. 이들을 막는다면 파르티아에 대한 승리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둘째, 로마군에 투석병을 증가한다면 중장 기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돌이나 납으로 된 탄환으로 중장 기병에 상처를 입히거나 말에서 떨어트린다면 파르티아군은 허약해 질 것이다. 크라수스의 군대에는 이들 투석병이 거의 없었다. 셋째, 밤에 파르티아 주둔지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기병을 하루 종일 태우고 전장을 누비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말들은 밤에 주둔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풀을 뜯기 때문에 이 때 로마군이 공격하면 말들이 체력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61)</sup> 넷째, 푸블리우스의 경우에

60) Plutarchos, *Crassus* 17.1-33.5.

61) S. Anglim, P.G. Jestice, R.S. Rice, S.M. Rusch, J. Serrati(eds.), *Fighting Tech-*

서 보듯이 뒤에 지원군이 따라오지 않는다면<sup>62)</sup> 적을 너무 멀리 추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멀리 추격하다보면 적에게 역공을 당하거나 적의 매복 작전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마리우스 이후 기병대가 약화된 것이 카라이 전투의 패배를 가져온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후 로마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Armenia)의 왕위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전투를 했고, 패배했지만 크라수스의 경우처럼 대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적에게 패배하면서 교훈을 얻는 로마인의 성향에 있었다.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은 기병 약화 외에 군인의 사병화라는 나쁜 결과를 불러왔다. 원로원은 마리우스가 재산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군대를 모집함으로써 인기를 잃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마리우스가 유구르타 전쟁을 위해 아프리카로 출항하기 직전 재산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결과, 집정관이 지휘하는 기존의 2개 군단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징집했다.<sup>63)</sup>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군 입대는 생계수단이였다. 군 입대가 재산을 가진 시민들의 의무였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땅이 없는 무산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달리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군 복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재산자격은 없어졌지만 군 입대는 여전히 로마시민들의 의무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원로원이 제대하는 군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군인이 된 무산자들에게 제대후를 보장해주는 주요한 생계수단은 군사령관들이 분배해 주는 전리품과 땅이었다. 이것은 군인들의 충성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전리품과 땅을 분배해 주는 군사령관들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군사령관들에게 충성하는 군인, 사병화된 군인이 양성되었던 것이다. 공화정 말기

*niques of the Ancient World 3000 BC~500 AD: Equipment, Combat Skills, and Tactics*, pp. 109-116.

62) Caesar, *De Bello Gallico* 5.17.

63)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86.1-4.

내란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적인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령관들의 자의적인 징집과 사병화된 군인들에게 있었다.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은 중소 자영농의 몰락이라는 경제적인 상황과 중대 편제의 약점 노출이라는 군사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만약 로마가 건국할 당시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고, 주변에 나라가 설립될 때 로마가 최강국이었다면 적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가 건국할 때부터 에트루리아라는 강력한 적이 존재했고, 하나의 적을 물리치면 또 다른 적이 나타나는 상황을 맞이했다. 밀집대형, 중대 편제, 대대 편제로 변하는 과정을 볼 때 로마군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약점들을 수정하면서, 혹은 적에게 패배하면서 배워서 완성된 것이었지 처음부터 완벽한 체제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었다.

#### 4. 맺 음 말

로마의 군대에서 에트루리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밀집대형 전술을 전수하고 전투 장비를 개선하게 한 공헌은 에트루리아에게 있었다. 기원전 4세기 에트루리아가 로마에 흡수되면서 로마는 갈리아나 삼니움과 같은 새로운 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밀집대형의 약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밀집대형은 일부 대열의 패배가 전체 대형의 붕괴로 이어졌고, 지형에 제약을 많이 받았고, 장창에 의존하고 조밀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기동성이 부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편제가 경보병, 장창 부대, 주력 부대, 제3열 부대로 나뉘는 중대 중심의 편제였다. 중대의 전투 방식은 전초전을 하는 경보병부터 차례로 적과 상대하는 순차 공격이었다. 순차 공격이기 때문에 장창 부대가 패배해도 곧바로 새로운 병력인 주력 부대가 투입됨으로써 일부 대열의 패배가 전체 대형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

다. 또 중대는 각 대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다가 지형이 고르지 못하면 그 간격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형의 제약을 덜 받았다.

로마군단의 전술 대형이 중대 조직에서 대대 조직으로 개편된 것은 마리우스 때였다. 대토지 농장제의 발달과 값싼 노예 노동력의 보급으로 중소 자영농이 몰락했다. 일정 재산을 가지고 병사로 동원될 수 있는 농민의 수적 감소는 징집 인원 부족으로 인한 로마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원될 병사가 부족하게 되자 마리우스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유 재산과 나이에 따라 중대를 편성하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또 중대는 대형 전개에 시간이 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었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어느 대열이든 투입될 수 있는 대대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다. 대대는 병사들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중대보다 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고, 명령 전달 체계도 간편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 무산자 입대로 인한 병력 증강과 오랜 복무 경험을 가진 군인 활용, 병사들의 유대감 증대라는 이점도 있었다.

중대와 대대로 개편한 이유는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편제를 개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로마는 한 가지 편제를 고집하지 않고 기존의 편제에 약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갔다. 로마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하여 세 개 대륙에 걸친 제국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다. 약점을 수정해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로마군 승리의 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06. 9. 29,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군편제, 밀집대형, 중대, 대대, 재산자격

<ABSTRACT>

## The Change of a Tactical Formation in the Roman Republic

Bae, Eun-sook

The tactics of a phalanx was introduced into Rome from Etruria in the sixth century. After Rome incorporated Etruria, she contended against Gallia and Samnium, and penetrated into the weak points of a phalanx in the fourth century. The weaknesses were that the defeat of a part of files was connected the collapse of a whole formation, that a phalanx was restricted by the lay of the land, and that a mobility lacked because the legionaries were standing densely in the phalanx. The organization for overcoming the weaknesses was a maniple divided *velites*, *hastati*, *principes*, and *triarii*. The battle method of a maniple was a sequence attack from the *velites* took charge of a combat in outpost to the *triarii* composed of the veterans. Therefore, the defeat of a part of files was not connected the collapse of a whole formation. And a maniple could deploy in a small area.

Marius reorganized a maniple into a cohort. The peasant fell by the development of *latifundium* and the supply of low-priced slaves. The decrease of the peasant-soldier meant the weakening of military strength. Marius permitted the plebs without property enlisted,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legionaries. The advantages of a cohort were a commander could try diverse tactics because all of the legionaries equipped the same armament, could convey quickly an order to the legionaries, and



could utilize the legionaries with having wide experi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onaries was strengthen in a cohort.

The tactical formation of the Roman Army was changed by the condition of enemies, or by economic situation. Rome didn't stick to one organization, but carried out diverse systems for improving the weaknesses of existing organization. An important factor of success of Roman Army was an attitude of the Romans that was trying to improve the weaknesses, and to realize diverse methods by the existing state of things.

Key Words : Military Organization, Phalanx, Manipulus, Cohort, Property Qualification

K C I